

신세대 흑인 래퍼 릴 나스 엑스 빌보드 신기록

미국의 신세대 흑인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20·사진)가 빌보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빌보드가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릴 나스 엑스 '올드 타운 로드' (Old Town Road)는 8월 3일자 싱글 차트 '핫 100' 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4월 13일자 차트에서 처음 1위에 올랐던 '올드 타운 로드' 는 17주 연속 정상 자리를 지키며 '핫 100'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수립했다.

이전 기록은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 멘이 컬래버레이션한 '원 스위트 데이(One Sweet Day)' 로, 1995년 12월부터 1996년 3월까지 16주간 1위를 지켰다.

카우보이 이미지를 차용한 뮤직비오와 컨트리와 힙합을 융합한 독특한 노래 '올드 타운 로드' 는 1999년생인 래퍼인 릴 나스 엑스의 메이저 레이블 공식 데뷔곡이다. 이 곡은 SNS상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차트를 역주행했다. '올드 타운 로드' 에 맞춰 카우보이와 카우걸로 변신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을 게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고, 이 같은 분위기 속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1위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이후 릴 나스 엑스는 빌리 레이 사이러스, 디플로, 영 락 등 유명 뮤지션들과 협업한 리믹스 버전을 선보이며 '올드 타운 로드' 의 인기를 더했다.

릴 나스 엑스는 애틀랜타 외곽의 소도시 리티아스 프린스 출신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다. 1999년생으로 이제 스무살이다. 얼마 전엔 방탄소년단 리더 RM 과 협업해 '올드 타운 로드' 의 리믹스 버전인 '서울 타운 로드' 를 발표하기도 했다.

몬스타엑스, ABC '굿모닝 아메리카'서 라이브 무대



그룹 몬스타엑스가 ABC TV의 모닝쇼 '굿모닝 아메리카' 에 출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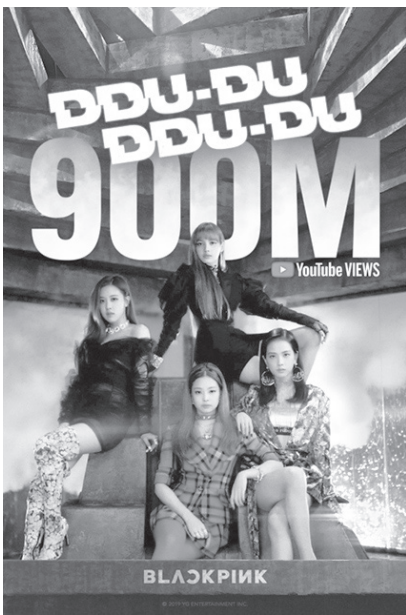
몬스타엑스는 지난 1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굿모닝 아메리카' 생방송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영어 싱글 '후 두 유 러브?' (WHO DO U LOVE?)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이날 방송에는 할리우드 배우 버네사 커비, 줄리엔 무어도 함께 출연했다.

몬스타엑스는 세계 20개 도시에서 23회 공연하는 월드투어 '위 아 히어' (WE ARE HERE) 미국 투어를 진행 중이다. 최근 댈러스를 시작으로 휴스턴, 애틀랜타 공연을 마쳤으며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무대를 앞두고 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오는 10일 2만 1천석 규모 스테이플스센터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월드투어 공연계에서는 1회에 2만 명 이상 동원하는 아티스트를 '톱랭커' 로 분류한다.

몬스타엑스는 오는 9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2019 아이 하트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9억 뷰 돌파 K팝 그룹 최초

걸그룹 블랙핑크의 메가 히트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 최초로 유튜브 9억 뷰를 돌파했다.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지난 30일 오후 9시 30분 무렵 유튜브 조회수 9억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 15일 공개 이후 1년 1개월 14일 만이다.

'뚜두뚜두' 는 2억 뷰 도달 시점부터 K팝 남녀 그룹을 통틀어 최단 시간 기록 행진을 했다. 지난해 여름 음원 시장을 강타하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1위에 꼽히기도 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퀸' 으로 불리는 블랙핑크는 멤버 제니의 'SOLO' 를 포함해 데뷔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8편의 뮤직비디오, 히트곡 안무 영상, 음악 방송 등 역대뷰 영상 총 16개를 보유했다.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2,873만 이상의 구독자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스타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1275호 낱말퍼즐 정답

	1 반	신	2 욕		3 조	통	4 박
5 무	대		6 심	7 장	부		주
가				닭		8 연	
9 지	10 불		11 허		12 악	습	
	13 호	언	장	담		14 장	15 화
	령		성				문
16 확		17 영	세	18 민		19 구	석
20 정	중	동		21 물	굽	이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기러기 엄마의 운(運)의 흐름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필자의 사무실에 40대의 여인이 찾아온 것이다. 그 여인의 사주를 보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는 그래도 여자 팔자로서 먹을 복과 자식복도 있는 팔자가 되는데 아쉬운 것은 운(運)의 흐름이 원만한 배우자의 덕을 입지 못하는 운(運)의 흐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지금은 기러기 엄마로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하고 떨어져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흔히 기러기 엄마들의 사주를 보면 보통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배우자의 덕이 떨어지는 운(運)의 흐름에

접어들면서 배우자와 떨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은 여생이 자식들의 발전과 현달이 따르는 운(運)의 흐름이 됩니다. 이런 운(運)의 흐름에서 남편과 같이 지내게 되면 오히려 서로 간에 분란(紛亂)이 일어나서 부부인연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다 마치면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같이 지낼 수 있는지요?"라고 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아마도 그렇게 되기 힘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부인이 살아갈 운의 흐름이 예전처럼 아내로서 원만한 남편의 덕을 입지 못하는 운로 입니다. 그러나 한 집에서 살아도 서로 생활하는 방을 따로 쓴다면 남편과 같이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왜 그런 것이냐고 묻는다. 이어서 필자가 해준 이야기는 "꽃과 나비가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 지내야만 서로의 생명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